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초등고학년(4학년)

제 목 슬픔을 삼킨 우체통

내 이름은 인연이다. 우리집에는 '머핀'이라는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집에 왔으니 지금 10살이다. 동갑인 우리는 서로에게 단짝이었다. 학교에서 시험을 못 봐도, 슬픈 일이 있어도 늘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였다.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도 내가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친구였다. 내 이름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인연인 셈이다.

그날은 내가 웃어서는 안 되는 날, 바로 머핀이의 생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잤겠지만 일찍 일어나 내게 엮다는 가득하며 칭찬을 해주었다. 머핀이도 자신의 생일을 안다는 듯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나의 등교길을 다중 나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수업시간이 지나고 머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머핀이도 슬퍼요. 머핀이도 슬퍼요." 머핀이는 내게 믿기 힘들겠지만 머핀이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전해왔다.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구분 초등고학년(4학년)

제 목 슬픔을 삼킨 우체통

머핀이가 요즘 슬피눈에 많이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급조 외출하고 온 상황이라 아무도 머핀이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다. 좀 더 잘해줘야 못한 후회가 강하게 마음에 박혔다.

그렇게 며칠 후,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통통 부은 눈으로 겨우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에 못보던 우체통 하나가 보였다. '하늘나라 우체통'. 그런 순간에게 편지를 써 보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머핀이에게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줄줄 써 내려갔다. 그동안 고마웠던 점부터 미안했던 점까지 쓰고 웃으며 나의 진심을 담아 편지를 완성했다.

편지를 다 쓰고 우체통에 넣으니 이제 더 이상 쓸볼하지 않았다. 언제나 머핀이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 한 달 후 놀랍게도 머핀이에게서 답장이 왔다.

"언제나 너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어. 너는 날 볼 수 없지만 나는 너의 곁에 있으니 걱정 말고 씩씩하게 지내." 정말 편지였지만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내가 슬퍼하면 머핀이도 슬퍼하니 이제 머핀이와의 시간은 소중한 추억으로 잘 간직해야겠다.

